광주 · 전남서 수능 3만4556명 응시

각 시험장 앞 교사 · 학부모 수험생 응원

수능 시험 결과 내달 4일 발표될 예정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84개 시험장에서도 3만4556명이 응시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됐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 입실을 마치고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오후 5시40분까지 시험을 치뤘다.

광주는 26개 시험지구에 38곳의 시험장에서 1만8536명이 응시하고, 전남은 7개 시험지구에 46개 시험장에서 1만5994명이 응시했다.

시·청각 장애와 뇌병변, 지체장애 등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수험생은 광주 38명, 전남 13평 등 모두 51명이다.

시험감독관과 관리요원으로 광주는 3428명, 전남은 3334명이 투입됐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시험장에서 여학생이 화장실에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올해 전국 최초로 응급구조사가 시험장마다 한 명씩, 모두 38명이 배치됐다.

신안 도초고와 임자고, 하의고, 진도 조도고, 완도 노화고와 금일고 등 전남 섬 지역 7개 학교 139명의 수험생은 전남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전날 육지로 나와 숙식을 해결한 뒤 이날 시험에 참여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주요 시험장 앞에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나와 수험생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이날 수능으로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졌으며, 각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나 주차 행위가 금지됐다.

수능 시험 결과는 오는 12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목포시의원들, 보건소 직원 불러 황제 예방접종" 논란

경찰 사실관계 파악 나서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보건소 직원들을 불러 독감백신을 맞았다는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목포문화연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목포시 보건소 A모 간호사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모 의원실로 출장하여 3~4명의 의원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SNS와 인터넷 언론에 보도됐으나 갑자기 삭제된 정황이 있고, 한 지역신문에도 구체적으로 보도됐으나 목포시 관계자들과 해당 시의원들은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특권의 행위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보건소 직원이 직접 의회를 방문,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목포시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오수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은 해명서를 통해 "허위사실이 기정사실화 돼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어린이급식센터 추가자료 보고를 위해 담당자가 기획복지위원장실을 방문했고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이 위원장실에 올라가 자료를 본 후 직원이 독감 백신에 대한 홍보를 했다"며 "그후 직원과 의원들은 기획복지위원장실을 바로 나온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시의원들이, 그것도 보건소 간호사를 불러 예방접종을 맞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예방접종 진위와 의료법 위반여부 등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목포경찰은 보건소 직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데 이어 시의회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회의실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사실관계 등을 따져 수사로 전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친구한테 욕했다"

야구방망이로 BMW 승용차 부순 조폭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야구방망이로 외제차를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국제PJ파 행동대원 A씨(2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10분쯤 술에 취해 광주 서구 한 노상에 주차된 B씨(29)의 BMW 승용차를 야구방망이로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친구 C씨와 술을 마시다 C씨가 "B씨가 내게 욕을 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MW는 전면 유리와 앞 범퍼가 심하게 부서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전날 용의자를 특정, A씨를 불구속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1

수능 이모저모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30분 만에 안전호송

14일 오전 7시19분쯤 광주 119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5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딸이 수능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춰 갇혔어요. 빨리 와주세요."

위치는 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아파트. 119는 곧바로 비상상황을 전파했다.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황, 구조대원들도 잔뜩 긴장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는 수험생이 거주하는 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도중 기계적 결함으로 멈춰 있었다.

구조대원은 장비를 이용해 승강기 문을 열고 A양과 학부모를 구조했다. 신고 접수 27분만. 시곗바늘은 7시3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능시험 입실 완료 시간인 8시10분까지는 30여분이 남은 상황. A양이 수능을 치르는 고사장인 광주 남구 설월여자고등학교까지는 20여분이 걸리는 거리였다. 수능 아침 교통이 혼잡한 것을 우려해 A양과 학부모를 태운 구급차는 즉시 수험장으로 내달렸다. 또 다른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조심하면서 급히 구급차를 몰았다.

소방당국의 신속한 구조와 이송으로 A양은 7시50분에 설월여고에 도착, 시험장에 무사히 입실할 수 있었다.

구조대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고3 수험생이라 예민하고 긴장한 상태일 수 있으니 최대한 말을 걸지 않고 급히 이송했다"며 "학생이 마지막에 내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인사하고 내리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다.

"어? 이 시험장이 아니네" 2교시 후 수험장 이동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4일 광주에서 4명의 학생이 실수로 자신의 고사장이 아닌 다른 고사장을 찾았다.

광주시교육청은 별실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원래 시험장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

1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2020학년도 수능 수험생 4명이 자신의 고사장과 다른 고사장에서 1, 2교시 시험을 치른 뒤 본래 시험장으로 옮겼다.

A고교에서 시험을 봤어야 할 한 수험생은 자신이 다니던 B고교가 시험장으로 지정된 줄 알고 B고교를 찾았다. B고교는 여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고사장이었다.

감독관들은 수능 시작이 임박한 만큼 이 수험생을 별실에서 특별감독관과 함께 1, 2교시를 본 뒤 점심시간에 자신의 시험장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또 한 수험생은 지난해 수험표를 들고 오면서 시험장을 잘못 찾아왔고, 특별감독관과 함께 별실에서 국어와 수학 시험을 본 후 원래 시험장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2명은 순간적인 실수로 학교를 잘못 찾았다. 이들도 별실에서 국어와 수학 시험을 본 뒤 자신의 시험장으로 돌아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4명의 수험생이 실수로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고, 2교시가 끝난 뒤 원래 시험장으로 옮겨서 시험을 보고 있다"며 "1, 2교시 시험 당시 별실에서 특별감독관과 함께 시험을 치렀다"고 말했다.

수능치르던 수험생 과호흡으로 응급실행

광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수험생이 건강문제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14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1분쯤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에서 수능 3교시 영어영역 시험 도중 A군(18)이 과호흡 증세를 보였다.

A군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군은 특별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